

## 시대를 넘지 못한 신여성, 윤영애의 비극

### 드라마보다 더한 막장 사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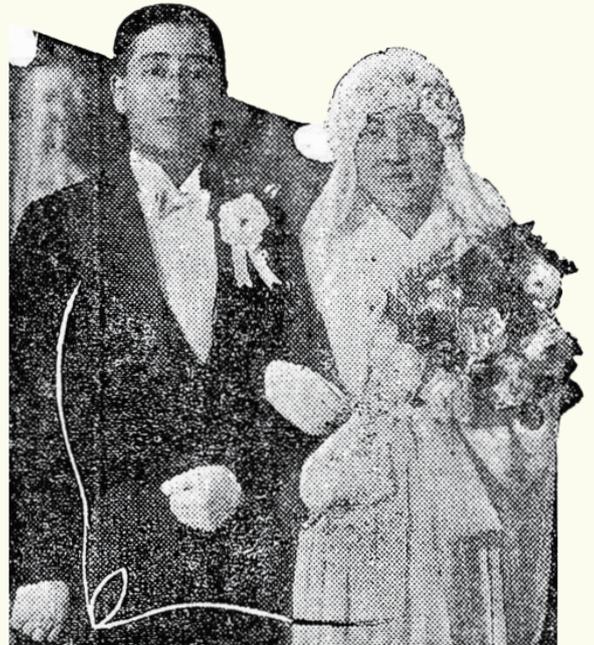
요즘 드라마나 유튜브에는 얽히고설킨 가족 관계와 현실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사건을 다뤄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하고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신문이나 뉴스 기사를 통해 알게 되는 현실은 드라마보다 잔인하다.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지만,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은 삶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기반 하나를 파괴하는 것이기에 더 잔인하고도 폭력적이다.

오늘날 드라마의 소재로 손색이 없을 이야기가 90년 전 수원의 신여성 윤영애에게 벌어졌다. 그녀에게 벌어진 사건을 살펴보자.

### 비극의 서막, 윤영애와 정성진의 결혼

1932년 5월 15일, 이화여전 영문과를 졸업한 윤영애는 같은 해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한 정성진과 결혼을 했다. 당대 최고 엘리트와 수원 부잣집 딸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게다가 주례도 남편의 대학 은사이자 후일 대법원장을 지낸 김병로가 맡아 줄 정도였다.

두 사람은 일본 유학과 전문학교를 다닌 공통



윤영애와 정성진의 결혼식(『동아일보』, 1933년 7월 29일)

점이 있어 서로 잘 어울렸다. 윤영애는 일본에서 진세이고등여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와 1931년에 이화여전에 입학했다. 그녀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사회문제에도 관심이 있어 마르크스주의 서적을 읽고 사회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학교에서의 성적은 어디서나 우수했으며 더욱이 모지 진세이고등여학교에서는 발군의

성적으로 졸업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빠지지 않는 용모, 세련된 체구! 다시 거기에 물 질적 혜택까지 갖추고 있는 여성이요, 가정에서 의 간섭과 구속조차 적게 가진 여성이었다. 실로 행운의 소녀요, 선양(羨仰)의 소녀였다.

(‘윤영애 순종(殉從) 애화’, ‘신여성’ 1933년 9월호, 이하 인용문 출처 <https://blog.naver.com/job34/150025144716>)

예비 신랑 정성진은 휘문고보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부상으로 1년간 일본 유학을 다녀왔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1929년에 경성법학전문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활달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졌으며, 재학시절에는 의학전문학교와 법학전문학교가 축구 시합을 하면 선수로 참여할 정도로 똑똑하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만능 재주꾼이었다.

정성진은 학교생활뿐 아니라 신간회, 조선학생회, 적우회 등의 사회 활동과 단체 활동에도 관심이 많았다. 그는 제1회 조선전문학생운동대회에서 ‘빈궁은 필요일까’라는 주제로 웅변을 준비할 정도로 사회문제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31년 11월 적우회 사건으로 경찰에 검거되었는데, 적우회는 조선총독부 기타 관청과 은행, 신문사 등의 급사들이 조직한 단체로 반제주의 노동자 계급의식을 고취하는 반제동맹 비밀단체였다. 검거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풀려나와 우수한 성적으로 전문학교를 졸업을 했다.

1932년, 정성진은 경성지방법원 서기가 되었고, 그 해 5월에 윤영애와 결혼을 했다. 이들의 결혼은 가난한 양반집의 똑똑한 아들과 부유하지만 양반이 아닌 집안 딸의 만남이란 점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1894년 갑오개혁 때 반상의 차별이 철폐된 지 이미 38년이 지났기 때문에 앞날이 창창한 두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결혼 후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이들에게 불행은 소리 없이 찾아왔다. 운명은 예측할 수 없기에

생은 의의를 갖는 다고 했던가. 이들의 운명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 신여성 윤영애의 매운 시집살이

결혼 초기에 윤영애와 정성진은 신혼집을 얻을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친정어머니가 살던 집에 들어가 살았다. 이 생활도 잠시, 윤영애는 수원 부잣집 친정의 도움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했다.

윤영애의 친정은 수원 인근에 대토지를 소유한 재력가 집안이었다. 아버지 윤성서는 수원에서 차유순, 양성관, 홍사훈, 나중석 등과 비교될 정도로 상당한 부를 축적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큰 오빠 윤태정이 아버지의 재산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계승해 지역사회에서 실업가이자 교육 사업가로 활동영역을 더욱 넓혀 갔다.

윤태정은 1937년에는 수원, 용인, 안성, 진위 지역에 120만 평에 달하는 광대한 토지를 소유했으며, 수원식림종묘회사, 수원극장(주), 화성홍산(주), 수원실업협회 등 당시 수원의 주요 사업에 참여했고, 화성학원과 수원중학기성회에도 많은 돈을 희사했다. 1939년에는 수원읍 학교 평의원에 당선되는 등 교육 분야에도 관심을 보였다. 해방 이후에는 태정의 아들이자 윤영애의 조카인 윤궁렬이 초대 수원시의회 후기 의장과 1960년 초대 민선 수원시장으로 당선되어 3대에 걸쳐 가족의 명망을 이어갔다.

오빠 윤태정은 윤영애를 위해 당시 1만 5,000원의 거금을 선뜻 지원해 줬다. 1930년대 경성의 30평 문화주택이 6,000원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sup>1)</sup> 집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남편의 직장과 친정어머니 집에서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마련했다.

신혼집을 마련하자마자, 시댁에서는 이 집에

1) <https://aleph-one.tistory.com/47>, 『경성리포트』

욕심을 내기 시작했다. 시아버지는 집문서를 지당 잡혀 빚을 얻어 썼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아들을 빼앗겼다고 분개했으며, 신흠집 안방을 차지하고 살면서 시집살이를 시켰다.

부모를 모르는 자식! 부모를 잊어버린 자식! 계집에게 홀린 자식! 이 몇 마디 말만으로도 성진이의 등 뒤를 헐박하는 폭풍을 짐작할 것이다. 가문이 낮으나 부자란 맛에 얻은 며느리였다. 그런데 덕은커녕 그 며느리는 자기 아들을 빼앗아간 셈이었다. …처음 결혼시킬 때는 이럴 예정이 아니었다. 며느리 덕으로 편안한 살림을 해보자 한 것이었다.

(윤영애 순증(殉從) 애화, '신여성' 1933년 9월호)

그러던 중, 건강하고 활달했던 정성진이 눈에 띄게 수척해지더니 몸져누웠다. 진단결과, 십이지장충에 의한 빈혈이었다. 당시 회충에 의한 감염이 흔했으며, 그 중 사람의 피를 빨아먹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십이지장충 감염이 가장 위험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아들이 병에 걸린 것을 며느리의 탓으로 돌리고 병간호를 하지 못하게 했다. 의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정성진을 강제로 퇴원시켰다. 그 결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정성진은 퇴원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33년 2월 28일 밤, 24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안타깝게도, 제대로 된 치료만 받았어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

시댁은 남편 정성진의 사망 이후, 윤영애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틈을 이용해 신흠집을 팔아버리고 친정집으로 내 왔다. 윤영애는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시댁의 처사에 저항 한 번 하지 못하고, 남편과의 추억을 정리할 새도 없이 친정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 시대를 넘지 못한 신여성 윤영애의 자살

집으로 돌아온 윤영애의 삶은 무기력했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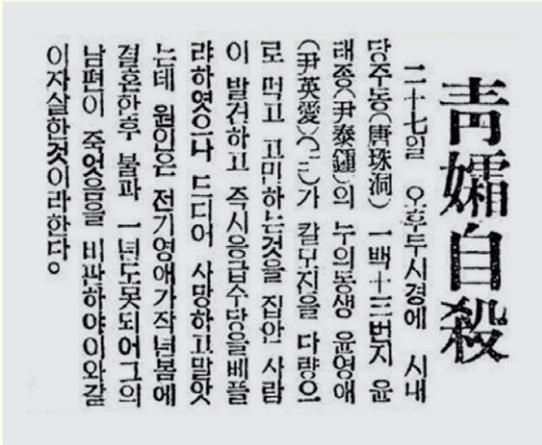
녀는 살면서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없었다. 윤영애는 부잣집 늦둥이 딸로 태어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덕에 어려움 없이 살았다. 일본 유학 시절에는 편지를 몰래 뜯어본 사감선생의 뺨을 때릴 정도로 당찬 여학생이었고, 당시 여성들은 쉽게 즐기기 어려웠던 영화감상, 수영, 테니스, 백화점 나들이 등을 즐겼던 신여성이었다. 그래서 어머니 세대와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는 다르게 녹록치 않았다.

윤영애는 시간이 지나 점차 안정을 찾아가던 중 원하는 일을 시작하면 남편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삶의 의욕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오빠에게 여학생 시절부터 해보고 싶었던 양장점이나 미용실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오빠는 예상과 달리 윤영애의 사회활동을 반대했다. 일본으로 유학도 보내주고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적극 지원해 주었기에 반대는 생각지 못한 것이었다.

하지만 오빠 윤태정은 당시 시댁에서 윤영애에 대한 추잡한 소문을 퍼트리고 다녔기 때문에, 윤영애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윤영애는 이러한 큰 오빠의 의견을 거스를 수 없었다. 1927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오빠는 집안의 가장이자 어른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버텨야 할 긴 세월이 두렵고 끔찍했다. 희망이 없었던 윤영애는 죽음을 결심하고, 먼저 일기장과 노트를 모두 불태우고 자신의 흔적을 모두 없애버렸다. 그리고는 약국에서 불면증을 핑계로 수면제인 칼모틴을 타고 유서를 준비했다. 준비를 마친 다음날, 윤영애는 1933년 7월 27일 22살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남편을 잃은 후, 시댁의 횡포에 시달리며 고통 받았고, 원하는 일조차 하지 못하게 되자, 삶의 의지를 회복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신문기사에는 남편의 죽음을 비판한 자살이



윤영애 자살을 다룬 기사(『동아일보』, 1933년 7월 27일)

라고 간결하게 쓰여 있다. 이 기사는 여성들이 겪은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안타까운 사연을 온전히 담지 못했다.

근대를 살아간 여성들은 사회의 폭력적 관습과 근대적 이상 사이에서 갈등해야 했다. 하지만 근대적 이상은 여성에게 너무 먼 꿈이었고, 새로운 꿈을 꾸지 못한 여성은 무자비한 시절을 견디거나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여성들은 사연을 가슴에 품고 아편이나 칼모틴을 먹고 자살을 선택했다.

사감 선생의 그릇을 보고 뺨을 치고 질책하던 그 용기를 가지고 왜 자기의 시부모의 그릇은 바로잡지 못했는가? 그렇게 씩씩하던 성격을 가지고서 왜 침묵 속에서 말 한 마디 변변히 못하고 불의의 희생이 되고 말았는가? 인종만이 며느리의 도덕이 아니라는 것을 영애가 가진 상식쯤이면 확실히 알았을 것인데 왜 자기의 소유, 자기의 자유, 자기의 인권 심지어 부부간의 사랑까지도 빼앗기면서 머리를 숙이고 말 한 마디 없이 못난이 노릇을 했는가 하는 의심쩍은 일이다.

처녀 때 가졌던 그 쾌활한 성격으로 주부로서의 권리를 찾았더라면, 만일 시부모로부터 떠나 소가족 제도를 실시해서 불완전한 조선의 대가족제를 깨뜨리는 사표가 되었다면 그 시부모들로 하여금 저널리스트의 회자거리



‘윤영애 순종 애화’가 수록된 『신여성』 (1933년 9월)  
출처 : <https://blog.naver.com/ho2994/222870790087>

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자혜, ‘윤영애 자살에 관한 사건’, 『신여성』 1933년 9월호)

그녀는 근대 문화와 교육을 경험한 신여성이었지만, 전통적 가족질서와 여성의 역할에 대한 구습과 불합리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했다. 그녀에게 왜 저항하지 않았느냐고 비난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가 겪은 고통과 괴로움, 누구도 손을 잡아 주지 않은 현실이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우리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1933년 『신여성』에 수록된 ‘윤영애 순종(殉從) 애화’에 그녀의 아픈 내면과 비탄의 눈물을 자세하게 담고 있지 않았다면, 윤영애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다. 윤영애의 자살은 전통이라는 사슬에 묶인 오래된 사회의 슬픈 자화상이다.

글 유현희 수원학연구센터 센터장